개미산, 국산·수입제품 "맞대결"

삼성정밀화학, 가격 6.2% 인상 … BASF제품과 접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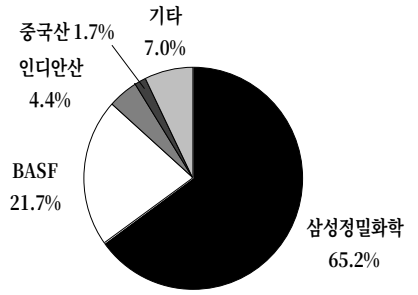
삼성정밀화학이 개미산 시장정체에도 불구, 수입 개미산과 치열한 시장쟁탈전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96년들어 BASF제품, 인디아산 등이 일제히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삼성정밀화학도 내수가를 인상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시장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6년2월 현재 개미산 수입가는 BASF제품이 95년6월 톤당 650달러 보다 17% 상승한 780달러, 인디아산이 600달러에서 19% 상승한 740달러, 중국산도 760달러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이같이 개미산 가격이 인상된 것은 개미산과 호환이 가능한 빙초산의 원료인 VAM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개미산 수급추이

(단위: M/T, %)

구 분	1994	1995		1996	
		수 량	증감률	수 량	증감률
생 산	8,000	8,000	0.0	8,000	0.0
수 입	4,000	4,000	0.0	3,500	▽12.5
공급계	12,000	12,000	0.0	11,500	▽4.3
내 수	7,500	7,500	0.0	7,500	0.0
수 출	4,000	500	▽87.5	500	0.0
수요계	11,500	8,000	▽30.4	8,000	0.0

국내 개미산 시장점유현황



이에 삼성정밀화학도 국제가 인상에 연동, 96년들어 개미산 가격을 Kg당 650원에서 690원으로 6.2% 인상해 판매하고 있다.
삼성정밀화학이 개미산 가격을 인상한 것은 피혁, 섬유산업의 불황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BASF, 중국, 인디아산 등과의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개미산 수요는 1만1500톤으로 이중 삼성정밀화학이 65.2%인 7500톤을 공급했고 BASF제품 2500톤 21.7%, 인디아산 500톤 4.4%, 중국산 200톤 1.7%, 기타 800톤 7.0%를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개미산 생산은 95년 1만2000톤 생산능력의 삼성정밀화학이 8000톤을 생산, 7500톤은 내수판매하고 500톤은 동남아 등지로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 대성 등이 BASF제품을 장기계약으로 수입하고 있고, 나머지 수요기업들은 스파트로 물량을 직접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90년이후 저가로 국내에 다량 반입됐던 중국산은 95년 2/4분기 30% 상승한 760달러로 가격을 인상하면서 하반기부터는 거래가 중단되고 있다. 이는 중국 자체수요가 급증, 내수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96년에는 중국산 수입이 급감한 대신 BASF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삼성정밀화학과 국내시장을 놓고 적극적으로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BASF는 95년 2/4분기 개보수를 통해 8만톤을 증설, 18만체제를 갖추는 등 거대 수요시장으로 변모된 중국과 동남아 등지를 겨냥, 공급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핀란드의 Kemira도 기존 4만5000톤에서 5만톤을 증설, 9만5000톤 체제를 갖추는 등, 세계 개미산 생산능력은 95년 33만톤에서 96년 46만톤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1996/3/18>